

# 사드 새벽 4시 기습 배치...중, 북핵 해결 연계 가능성

## 한국에 경제보복 조치 강도 높일지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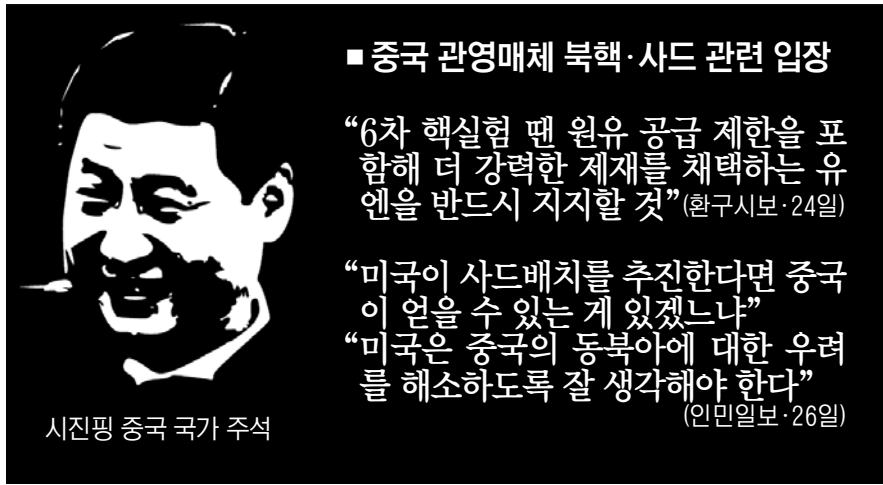
주한 미군이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 포장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핵심장비를 반입하고 사실상 포대 배치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중국의 대북 압박과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전례 없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 온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북핵 해결 협력을 연계할 가능성과, 사드 관련 대한민국 경제보복 조치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 등에 이목이 쏠리는 양상이다.

이번 사드 장비의 부지 반입은 한미 입장에서 북핵 방어 역량 확보 조치인 동시에 중국을 향해 '서둘러 북핵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압박의 측면이 있다. 한미는 그동안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가 필요없어진다는 논리로 중국의 보복 중단을 촉구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난 2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 계기에 꾸준히 사드 배치를 서두르지 말 것을 한국에 요구해왔다. 이는 결국 사드 배치를 차기 한국 정부에게 넘기라는 말이었다. 26일 새벽 이뤄진 사드 부지로의 장비 반입은 '다음 한국 정부로 넘기리'는 중국의 요구에 배치되는 일이지 중국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 ■ 중국 관영매체 북핵·사드 관련 입장

“6차 핵실험 때 원유 공급 제한을 포함해 더 강력한 제재를 채택하는 유엔을 반드시 지지할 것” (한국시보·24일)

“미국이 사드배치를 추진한다면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게 있겠느냐”  
“미국은 중국의 동북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잘 생각해야 한다” (인민일보·26일)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또 하나의 관심은 중국의 북핵 관련 행

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한 대북 영향력 행사 압박을 받아 온 중국은 최근 관영 매체를 통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대북 원유공급을 대폭 축소할 것임을 시사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서도 북한에 도발 금지를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김일성 생일(4월 15일)과 인민군 창건일(4월 25일)에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대북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때문에 만약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이 미중간 물밑 의견교환 과정 없이 추진된다면, 중국은 북핵 관련 협력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미국에 불만을 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런 반면, 중국이 신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만만치 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26일 “중국의 북핵 관련 협력은 전반

적인 '판세'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판단 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사드를 이유로 쉽게 북핵 협력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식통은 “사드는 주로 한미중이 걸린 문제이지만 북핵 문제는 국제적으로 비난이 쏟아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도 사드와 북핵 대응은 어느 정도 분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재홍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강화하고, 북핵 문제에서도 한국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장비가 들어오도 중국으로서도 사드의 눈 역할을 하는 X밴드 레이더를 작동하는지가 최종 변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북핵 실험은 없었다...한풀 꺾인 한반도 4월 위기론

북한이 장군절(4월 25일)에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고강도 전략 도발을 자제하면서 '4월 위기설'도 한풀 기세가 꺾이는 분위기다.

북한이 앞으로 4월 마지막 날까지 남은 나흘 동안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지 않으면 “주요 기념일이 밀집된 4월에 북한이 특대형 도발에 나설 것”이라던 예상은 빗나가게 된다.

북한의 4월 기념일 중 가장 중요한 날은 김일성 주석의 105주년 생일(4월 15일)과 장군 85주년 기념일이었. 특히 올해는 북한이 중시하는 이른바 '꺾어지는 해'(매 5주년과 10주년)여서 북한의 4월 기념일에 더욱 눈길이 쏠렸다.

4월로 접어들자 주요 기념일에 즈음해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의 과거 행태로 미뤄 김일성 생일이나 장군절에 맞춰 대형 도발을 할 것이라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 생일 당일인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하며 도발 대신 무력시위를 선택했고, 다른 기념행사들도 축제 분위기로 치렀다.

김일성 생일에 도발이 없었으므로 북한이 장군절을 맞아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라던 예측이 나왔지만, 이 또한 빗나갔다. 북한군은 장군절 당일인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장사정포 등 화포 300~400문을

투입해 대규모 화려훈련을 진행했다.

이는 애초 예상된 6차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와 비교하면 미국과 중국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저강도 도발로 평가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6일 “북한이 김일성 생일과 장군절이라는 분수령을 넘은 만큼 '4월 위기설'은 지나갔다고 본다”며 “5월에는 한국 대선이 있고 북한에는 특별한 기념일도 없어서 당분간 미국과 중국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대형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을 자극할만한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언제든 군사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여전히 있다. /연합뉴스



이방카 첫 국제무대 데뷔...메르켈과 동석 양겔라 메르켈(왼쪽) 독일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여성 경제정상회의(W20) 만찬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방카는 메르켈 총리의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 의석수 0...佛 대선 1위 마크롱 '가시밭길'

다음 달 7일 실시되는 프랑스 대선 결선에서 중도신당 '앙마르슈'의 에마누엘 마크롱(39) 후보와 극우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48) 후보 둘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정운영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의회 전체 925석 가운데 마크롱이 창당한 앙마르슈와 르펜이 이끄는 FN이 확보한 의석수는 다 합쳐 3석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더라도 다른 정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정치계 '아웃사이드'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후 의회 내 '아군' 부족으로 정책 추진 및 인사 기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프랑스에

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해 앙마르슈를 창당, 의석이 한석도 없는 등 정치 기반이 취약한 마크롱이 당선된다면 국정 운영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WP는 진단했다. 현재는 르펜의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1차 투표에서 떨어진 후보들이 의기투합해 마크롱을 측면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연대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크롱이 권력을 쥔 뒤 프랑스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마크롱 측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도 예상된다.

두 후보 모두 하원 의석 577석이 걸린 6월 총선에서 총력을 다해 가능한 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연합뉴스

마크롱 측 대변인은 이미 총선 출마 희망자 3만 명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1차 대선투표 결과는 정치인들을 바꾸고자 하는 큰 열망을 보여줬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변화를 원한다. 똑같은 얼굴로는 정치 행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며 다가올 총선에서 승리를 자신했다.

르펜 쪽도 총선을 준비 중이다. FN은 현 선거 체제의 높은 장벽을 넘는데 고전하며 2012년 총선에서도 한 자릿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N 회계담당인 발레랑 드 생쥬스트는 “르펜의 당선은 프랑스 정계는 물론 다른 정당에도 큰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며 “다른 정당 인사들이 FN이라는 당명을 달고 선거에 나가기를 원할 수 있다. 이에 맞춰 우리도 후보자 명단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방카 中 납품업체 노동표준 24개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소유한 의류 브랜드 납품업체가 중국에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노동감시단체인 ‘공정노동협회(FLA)’가 이방카의 의류 브랜드에 독점 납품하는 ‘G-III 어퍼럴 그룹’의 중국 내 공장을 지난해 10월 이틀간 감독한 결과 드러났다. 감독 결과 장시간 노동, 안전시설 미비, 최저임금 미만 임금 등 24가지에 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표준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이 공장 노동자의 임금은 월 255~283달러(29만~32만원)로 중국 일부 지역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중국 도시지역의 제조업체 임금은 이 공장의 두 배를 넘는다.

중국 정부는 월 초과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제한했지만, 이 공장의 대다수 근로자는 이를 넘어서 월 최대 82시간의 초과 근로를 했다. 중국에서 법으로 의무화된 근무 시간은 이 공장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작업자의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노동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많은 안전 문제가 발견됐다고 FLA는 전했다.

FLA는 이러한 문제점을 G-III에 통

보했다. 하지만 G-III는 교육 강화 등을 다짐하면서도 임금 인상 약속은 끝내 하지 않았으며, 일부 권고의 수용은 뒤로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을 비롯해 인도, 파키스탄 등에 공장을 둔 G-III는 이방카의 의류 브랜드 외에 캘빈 클라인 등에 납품하고 있다.

이방카는 “G-III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유망한 브랜드들과 일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밝혔지만, G-III는 2015년에도 저임금, 안전 미비 등으로 FLA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WP는 꼬집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는 정책을 펴고 있는 시점에서, 이방카 브랜드 의류의 대부분이 중국 등에서 생산되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 싸고, 투자가치 전망있는 물건, 매매. **친절상담 H. 010 - 3605 - 5000**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하고 전화요망

## 거문도, 팬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변촌마을)
- 대지, 계획관리지역
- 마을회관 바로 옆, 전망최고
- 1261 - 1번지 - 49평
- 1260 - 2번지 - 90평
- 1376 - 2번지 - 67평
- 1351 - 4번지 - 182평
- 1352번지 - 58평
- 1353번지 - 69평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상담후 결정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임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 광양, **싼**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중동 라히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 나주, 남평읍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